

# 일주문 안에 가정집이 있네



일주문 안에 있는 속가들.

광주 사람들의 삶의 기쁨 하나는, 무등산 봉우리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나는 무등산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린다. 자신은 더 큰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 자식들의 작은 상처에 눈물 보이는 어머니. 자신은 제대로 걸지도 못하면서 괜찮다 괜찮다는 말만 하시는 어머니. 누구든 무등을 보면 모시고, 뒤를 린 자신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에서 증심사까지는 꽤 먼 거리가. 도시 안에 큰 산이 있는 탓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리밥집으로 유명해진 식당들이 즐비하다. 가게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소개되었노라고 광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당이 맛집으로 소개된 곳이기도 그런 광고도 의미가 없다. 절에 왔으니 부처님 배알이 우선이라 곁을 서두른다. 신림(新林) 마을 표지석이 보이고, 다리를 건너니 단풍나무 그늘이 좋다. 이내 의재미술관이 나오고, 갈라진 길이 나온다. 왼쪽 가파른 길이 증심사로 가는 길이다.

일주문을 지나자 몇 기의 부도가 있고, 절과 이웃한 몇 채의 집이 보인다. 일주문 안에 속가가 있는 경우는 드문데, 현재의 증심사는 절 안에 승숙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다. 대중전을 들르고, 오백전

으로 향한다. 증심사의 대부분 건물이 한국전쟁때 전소되었지만, 오백전은 오백나한을 모신 곳으로 유일하게 화마를 피한 건물이다. 조그마한 크기인 5층 석탑과 7층 석탑은 앙증맞다. 나한전을 지나 석조보살입상을 본다. 원통형 보관을 쓰고 있는 것

## 큰 산 탓에 오가는 사람 많고 보리밥집 즐비 주차장 주변 새상가...신림 마을 철거 예정 추진위원회 돌로 나뉘고 보상금 협의도 난항

이 특이하다. 원래는 담양의 서봉사지에 있었다고 한다. 찾는 사람이 많으니 보살상 앞바닥에는 방석이 깔려있다. 절에서 나와 등산로 쪽으로 향한다. 아주머니 한 분이 상추를 뜯고 있다. "장사도 안 하고, 손발 들어본 지가 한 오륙년 됐어요"라는 유길례(67·신림씨). "방 하나 정제 하나 오무막집이었는데, 지붕이 내레 앉아 갖고, 글고 보상도 없다고 그냥 떠나." 증심사 입구 정비 차원으로 신림 마을이 철거될 예정인데, 절 땅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야기를 끝내고 허술한 밥집으로 향한다. 무얼 먹을 거냐고 묻지도 않고, 잠시 후에 밥 한 상이 나온다. 담양이 고향이 이곳이라는 김순임(71·신림씨)은 음식 솜씨가 좋다. 또한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누구든지 뭘지 몰지 못하면, 와파야 짐마 뭘지 몰지 못하게 했네, 그래요." 서른에 장사를 시작했다 한다. "나는 밥을 저분(저가락)으로 묵으면 안 안 차. 송구락으로 막 퍼서 묵어야 배가 뽕뽕 인내. 이것저것 너 갖고 잡사 봐. 아따 묵을지도 모를서, 밥 먹는 게 시원치 않다고 나무란다.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정글 뭉뭉하게 고상했더니..." 하면서 말을 흐린다. 그때 가게 앞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



##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 16 무등산 증심사

은 채 노부부가 지나간다. 순간 김씨의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 찬다. "나는 저런 시상 한 번도 안 살아 봤어."

40년 전 식당을 처음 했을 때, 밥 한 그릇에 300원 했다 한다. 300원짜리 밥이 5000원이 되도록 식당을 하였지만, 부자는 되지 못했다. 식당을 나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책가방을 메고 오는 한 아이가 있다. 학은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절 바로 아래에 있는 집에 산다고 한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시원하다. 버스 종점에서 집까지 보통 25분이 걸린다고 한다. "절에 다니느냐?"고 물으니, "절도 믿고 교회도 믿어요" 한다. 이유를 물으니, "교회는 믿어서 믿는 거고, 절은 엄마가 믿으니까" 한다.

사하촌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통장 내외를 만나서야 들었다. 현 주차장 주변에 새로 상가를 조성할 계획인데, 2008년 완공 목표라 한다. 주차장 근처에 있는 가게와 땅에 대한 보상은 이미 끝났고, 문제는 보리밥 집이 즐비한 신림 마을인데,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통장(김경자·56)은 별로 말이 없고, 곁에 있는 남편(정부연·60)이 차분하게 설명해준다.

"추진위원회가 들어라."

주민을 대표할 추진위원회가 돌로 나뉘어 있어서, 광주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못한 상태라 한다. 빨리 합의를 보고 일을 추진하자는 쪽과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자는 쪽이 맞서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마을은 철거되고, 자기 가게를 가진 사람에 한해 40등을 분양 받게 되는데, 땅을 사서 들어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스레 보상금이 문제가 된다.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얼마쯤 보상 받아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저 땅을 사갖고 지셔야 돼. 그니까 못 들어가가지."

광주=이대홍(시인·본지 객원기자)



차밭에 둘러 싸인 증심사.



증심사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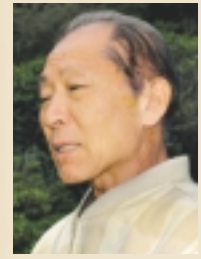


정계재.



신림 마을.

## 남종화 레가계산 장찬홍 회백



증심사는 남종화의 대가의 허백련 선생과 연관이 많다. 증심사 뒤쪽 차밭은 의재 선생이 가꾸며 춘삼자를 만 들었던 곳이며, 증심사 아래 춘삼원은 의재 선생이 기거하며,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차를 마셨던 곳이다. 그 춘삼원에서 끝까지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의재 묘소가 있고, 밭지 않는 곳에 계산 장찬홍 회백(사진)의 청계재(淸溪齋)가 있다. 노회백은 인터넷을 시작하자, 의재 선생에게부터 꺼낸다.

"그림 그리라는 사람이 글씨도 잘 써야 하지만, 글씨보다 먼저 학문, 학문보다 먼저 인식이 되어야." 의재 선생이 늘 했던 말씀이라 한다.

"계산은 동안 13년 모시고, 돌아가신 뒤 30년 모신 셈이지."

말이 맑고 차분하다.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그의 귀가 참 순하게 생겼다. 스무 살 무렵부터 의재 선

##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제자 승과 다르지 않은 삶 살아

생을 사사(師事)하기 시작하여, 6세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어린 제자였던 그가 남화의 대가로운 장발고 있다.

"새벽 다섯 시면 일어나. 증심사 새벽 종소리가 네 시면이면 날 겨우, 다섯 시경에 일어나 그러면 그림을 상경하 그러고만."

부지런한 그는 최근 장작이 더 왕성해졌다.

"아저씨 말 것 속되지 말 것. 현하지 말 것. 지저분 하지 말 것.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기쁨이 있어야 할 것. 소나무 같은 것은 특히 기쁨이 꺼지지."

그의 그림 세계는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소나무 그림을 즐겨 그린다. 그림 한 점을 벽에 걸어 보았더니, 오래된 숲속 하나가 벽에 대신해 나타난다. 그림에 그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격조가 높다. '자유자재한 경성(鏡性)'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는 평이 틀리지 않다.

"장천재를 자주 가. 장천재 앞에 가면 태고송이 있고, 그 소나무 기운이 오래 남는다고 한다. 그 나무를 보고 오면, 일 년 동안 쓸 소나무 기운을 받아와."

그의 고향 장흥의 장천재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오면, 소나무 기운이 오래 남는다고 한다. 그가 즐겨 그리는 소 그림을 보고, 이형준 선생은 일견 불교적 경성(鏡性)의 경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비록 속인으로 머물고 있지만, 그의 생활은 승과 다르지 않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또한 40여년 산 속에 살며 다다른 내적 경지는 고승의 반열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법法玄현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범문집의 백미" 서용대종사의 법제자 계산중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서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로동 135-3번지 전화 031)792-6825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